肝

바닷가 해빛 바른 바위우에습한 肝을 펴서 말리우자、코카사쓰山中에서 도맹해온 토끼처럼둘러리를 빙빙 돌며 肝을 직히자.내가 오래 기르든 여윈 독수리야!와서 뜨더먹어라、시름없이너는 살지고나는 여위여야지、그러나、거북이야! 다시는 竜宮의 誘惑에 않떠러진다。푸로메디어쓰 불상한 푸로메디어쓰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끝없이 沈澱하는 푸로메드어쓰、

一九四一、十一、 二九日、

간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코카사쓰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내가 오래 기르던 여윈 독수리야!와서 뜯어먹어라, 시름없이너는 살지고나는 여위어야지, 그러나,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불 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1941.11.29.